

『함흥본궁의식』 소재 별대제 편성악기에 대한 고찰

김영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음악학 전공

lautre6@naver.com

- I. 머리말
 - II. 함흥본궁의 예제적 성격
 - III.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 비교·분석
 - IV.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 해석과 용례
 - V. 맺음말
-

I. 머리말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 제181권 중 「군서표기」³ 어정3에는 <함흥본궁 의식(咸興本宮儀式)>이 실려있다.¹ 함흥본궁(咸興本宮)은 태조 이성계의 잠저(潛邸)로 현재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소나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국보 제107호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초 자신의 4대조에게 존호를 올리고, 함흥본궁에서 제향을 설행했다.²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함흥본궁 묘제(廟制)는 원묘(原廟)³에 속한다. 조선시대 원묘로는 함흥본궁보다 문소전(文昭殿)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편이다. 중종대 기묘명현을 필두로 이황과 이이에 이르기까지 문소전이 지닌 예제적 결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세종이 건립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문제제기는 문소전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소실되자 유학자들의 비판에 근거해 문소전은 다시 건립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제례도 설행되지 않게 되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소전 제향절차는 조선전기 세종대 『오례의(五禮儀)』와 성종대 『악학궤범(樂學軌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그리고 조선후기 정조대 『춘관통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 이 논문은 한국국악학회 주최 “2022년 상반기 국악학 전국대회(2022.5.14.)”에서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정조(저),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어정」, 함흥본궁의식(한국고전번역원, 2000).
- 2 『태조실록』 1년(1392) 7월 28일 2번째 기사. 본고에서 확인한 바로는 당시 행한 제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제례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지 못했다. 조선 개국 전에 이루어진 제향인 만큼 고려의 태묘나 경령전 제의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 3 『춘관통고』(K2-2143) 15책 「원묘」, 82a~84a.
- 4 한형주, 「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24(2007), 88~97쪽;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문화사적 고찰』(민속원, 2018), 224~226쪽.

이에 비해 함흥본궁 향사(享祀)는 1795년(정조 19)에 왕명으로 편찬되기까지 의궤나 의식으로 정리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함흥본궁에서 치러졌던 의식이 『오례의』, 『국조오례의』나 『악학궤범』, 『춘관통고』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로 내수사 별차와 노비, 그리고 무당에 의해 본궁제향이 사사롭게 치러졌으며⁵ 정식 제향 외에도 연원을 알 수 없는 제사가 함께 행해졌다는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⁶ 이에 대해 대신들은 비판과 더불어 폐지를 주청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음사(淫祀)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궁제향은 역대 국왕들의 비호 아래 영조대까지 그대로 유지, 지속⁷되어왔다. 정조대에 편찬된 『함흥본궁의식』 역시 문소전 제향과 종묘대제에 의거해 헌관과 제향절차, 제례악만 바꿨을 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함흥본궁의식』이 정조대에 이르러 정리된 배경에 대해 문예부흥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존연구는 밝힌다. 왕권강화책으로 숙종대와 영조대에 있었던 단종복위와 사육신, 김종서, 황보인의 관작추복, 경복궁 재건 등을 잇는 정조의 왕실위상강화책이라는 주장과

-
- 5 함흥본궁에서 무격(巫覡)의 치제가 이루어진 배경은 태종과 세종대에 오례(五禮)를 정비하면서 여제(厲祭)를 이중구조로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창궐 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주인없는 귀신을 위한 여제를 설행했다. 조선은 여제를 관리가 헌관(獻官)이 되어 국가에서 정한 날에 올리는 제례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명산·대천·악·해·독에 무격을 파견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도록 하는 제의로 이중설계했다. 국가가 주관하고 민간에서 무격이 치른 제의식 장소 중 함흥이 포함되어있었고 백성들이 치성을 드리기 위해 함흥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다. 이와 같은 제의는 조선 후기를 거쳐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김영주, 『시용향약보』 소재 무가류 악곡 수록배경 연구, 『한국예술연구』 35(2022), 289~309쪽.
 - 6 『중종실록』 7년(1512) 2월 29일 6번째 기사; 『정조실록』 19년(1795) 4월 28일 1번째 기사; 『인조실록』 20년(1642) 10월 11일 2번째 기사; 『숙종실록』 4년(1678) 12월 23일 3번째 기사; 『중종실록』 4년(1678) 12월 23일 3번째 기사. 윤정, 『정조의 本宮祭儀 정비와 ‘中興主’ 의식의 강화』, 『한국사연구』 136(2007), 179~216쪽에서 재인용.
 - 7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5월 26일 28/28 기사.

속중대에 있었던 청과의 백두산 정계(定界)를 계기로 국경문제와 국경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영·정조대에 함경도 개발이 있었고,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백두산 치제와 함께 함흥본궁에서 치러져 왔던 제향의식을 의례로 정리했다는 주장이다.⁸

『함흥본궁의식』에 대한 학계 연구는 2014년에 발표된 이욱이 쓴 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The Confucian Systematization of the Royal Ancestral Cult: On Chosŏn's Hamhŭng Pon'gung」⁹에서 유교적 의례에서 벗어난 함흥본궁에서 치러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이 연구에서 다른 제의와 관련한 내용 외에도 『함흥본궁의식』에는 음악학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의례를 중시했던 나라로 흥례와 몇몇 의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례에 반드시 음악을 사용¹⁰하도록 했다. 『함흥본궁의식』에 의하면 음악을 사용하는 제례는 별대제(別大祭)와 태백제(太白祭)이다. 함흥본궁 별대제는 함흥본궁 정전(正殿)에서 정조(正朝), 4월, 10월에 태조 이성계와 그의 4대조에게 올리던 제향을 지칭한다. 태백제

8 강석화, 「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강화」, 『규장각』 13(1995), 50~56쪽; 윤정, 「속중대 신덕왕후 본궁 추부 논의와 본궁 인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37(2009), 184~196쪽; 윤정, 「정조의 본궁 제의 정비와 중흥주 의식의 강화」, 『한국사연구』 136(2007), 183~198쪽.

9 Wook Lee, "The Confucian Systematization of the Royal Ancestral Cult: On Chosŏn's Hamhŭng Pon'gung,"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5, No. 2 (2014), pp. 89~118.

10 『국조오례의 서례』에 의하면 음악을 사용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길례: 대사, 중사, 속제/가례: 정지급성절망궐행례의, 황태자친추절망궐행례의, 영조서의, 영칙서의, 배포의, 정지왕세자백관조하의, 정지회의, 중궁정지명부조하의, 중궁정지명부조하의, 중궁정지회명부의, 삭망왕세자백관조하의, 조참의, 왕세자관의, 납비의, 책비의, 책왕세자의, 책왕세자빈의, 책왕세자빈의, 하의, 교서반강의, 교서반강의, 문무과방방의, 생원진사방방의, 음복연의, 사신급외관정지탄일요하의, 사신급외관삭망요하의, 사신급외관배전의, 사신급외관수선노의, 사신급외관영내향의, 외관영관찰사의, 개성부급주현양노연의, 향음주의/ 빈례: 연조정사의, 왕세자연조정사의, 종친연조정사의, 수린국서폐의, 연린국사의, 예조연린국사의/ 군례: 사우사단의, 사우사단의, (대열의), 계동대나니.

는 함흥본궁에서부터 20리 떨어진 도련포(都連浦) 제성단(祭星壇)에서 매년 단오에 태백성(太白星)을 대상으로 설행했던 제의로 함흥본궁과 도련포를 왕복하는 과정에 요가(鑿歌)를 사용¹¹하고 별대제와 같은 제의 절차에 음악을 연주¹²했다.

『함흥본궁의식』에 남아있는 음악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의례악 일반과 다른 양상을 띤다. 첫째, 『함흥본궁의식』 중 별대제에 사용한 일부 악기 이름이 중국 고대 아악기명(雅樂器名)으로 남아있다. 문소전 친행악현과 섭행악현 그리고 연은전 친행 악현에 아악기를 사용한 사실을 제외하면 이후 원묘 제향악현에 아악기가 포함된 적이 없다. 둘째, 함흥본궁 별대제에 사용한 악기구성이 조선시대 원묘제향악현 악기구성과 다르다는 점이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조선시대 원묘 제향에 사용하는 악기는 문소전 제향악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성¹³되었다. 문소전 친행 전상악(殿上樂)·전정악(殿庭樂)을 축소해서 문소전 섭행 악현을 구성했고, 문소전 섭행 악현(攝行樂懸)은 연은전(延恩殿) 친행 전상악·전정악 악현이 되었다. 이를 다시 축소해 연은전 섭행악현이 편성되었고, 연은전 섭행악현은 소경전(昭敬殿) 제향악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 원묘 제향악현이 구성될 동안 아악기 사용은 문소전과 연은전 친행악현에 국한되었고 이후 원묘제향악현에 아악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연은전 이전에 만들어진 의묘(懿廟) 악현은 속악기(俗樂器)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고악(鼓樂; 鼓吹)이라고 지칭했다.

즉, 함흥본궁 제의에 사용한 악기에 대한 쟁점은 악현을 구성하는 일부 악기 명칭이 아악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악기와 악현의 실체를 파악하기

11 정조(저),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어정」, 함흥본궁의식(한국고전번역원, 2000).

12 위의 책.

13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2 「아악속악진설도설(雅樂俗樂陳設圖說)」, 문소전 친행 전상악(文昭殿親行殿上樂)~소경전 전정악(昭敬殿庭樂).

힘든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흥본궁 악현과 조선전기 원묘 그리고 『함흥본궁의식』과 동시대에 간행한 전례서에 수록된 악현도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Ⅱ. 함흥본궁의 예제적 성격

1. 『함흥본궁의식』의 서지

『함흥본궁의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 있다. 『함흥본궁의식』은 1795년(정조 19) 왕명으로 함흥감영에서 간행한 제례의례이다.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함흥본궁의식』은 목판본으로 1795년 여름¹⁴에 편찬했다. 인기(印記)는 규장지보와 이왕가도서지장으로 되어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함흥본궁의식정례』 인기는 제실도서지장(奎2281, 奎14267), 규장지보 등이 있다. 편찬 책임자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낙성(洪樂性, 1718~1798)¹⁵이었다. 『함흥본궁의식』은 모두 두 권으로 되어있으며 장서각본과 규장각본의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함흥본궁의식』의 목차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인기(印記)	奎章之寶, 李王家圖書之章 奉讓堂印	帝室圖書之章, 奎章之寶
판본(板本)	木板本	稿本, 木板本

14 『함흥본궁의식』(K2-2497), 9b.

15 『함흥본궁의식』(K2-2497), 10a.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목차	권1	敬題咸興永興本宮儀式卷首 咸興本宮儀式凡例	正祖御製의 敬題咸興永興本宮儀式卷首 凡例
		咸興本宮儀式卷之一目錄	目錄
		覽瞭然	
			建置
		傳教	傳教
		祝文	祝文
		奏啓	奏啓
	권2	咸興本宮儀式卷之二目錄	目錄
		圖式	圖式
		祭品	祭品
		祭器附祭服	祭器
		笏記	笏記
		排設	排設
		修理	修理
		進供	進供
		官屬	官屬
		節目	節目
親臨便殿咸興永興兩本宮衣櫛幣帛香燭祭品			
事記			

표1에서 보다시피 장서각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 목차는 근소하게 상이하다. 장서각 소장본 권1에는 함흥본궁에서 행해지는 제례일자와 물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남료연(覽瞭然)항이 있고, 함흥본궁 내력을 기술한 건치(建置)항은 없다. 반면, 규장각 소장본 권1에는 남료연항은 없고 건치항은 존재한다. 규장각 소장본 권2의 제기(祭器)항은 장서각 소장본에서는 제기부제복(祭器附祭服)이라는 항목으로 되어있다. 또, 장서각 소장본에 기록되어있는 친림 편전 함흥영흥양본궁 의대 폐백 향축 제품(親臨便殿咸興永興兩本宮衣櫛幣帛香燭祭品)항과 사기(事記)항은 규장각 소장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함흥본궁 묘제와 의례 성격

『함흥본궁의식』에 기록한 향사는 제장(祭場)에 의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태조 이성계의 4대조와 왕후들의 위판을 모셔놓은 정전 내부에서 거행되는 제향과 정전 외부에서 거행되는 제사로 구분되는데 첫째, 정전에서 거행되는 제향으로 별대제, 별소제(別小祭: 춘절제, 반행제, 추절제, 동절제), 매월 삭망제(朔望祭)가 있다. 둘째, 정전 외부에서 행해지는 제사로 5월 단오에 행하는 태백제, 1월과 9월에 행하는 야백제(夜白祭), 12월에 행하는 야흑제(夜黑祭), 8월에 행하는 산제(山祭)¹⁶가 있다. 제향일은 내수사에서 매년 선달에 정해 보내고 만일 삭망제와 날이 겹치면 삭망제는 생략하도록 했다.¹⁷

표2- 제장으로 분류한 『함흥본궁의식』 소재 향사¹⁸

제장	향사	시기	음악사용여부	
정전내부	별대제	정조·한식(4월)·10월	작헌례	
	별소제	춘절제	2월	—
		반행제	6월	—
		추절제	7월	—
		추석제	8월	—
		동절제	동지, 다례	—
삭망제	매월, 22차. 정조와 추석에는 행하지 않음.	—		
정전외부	태백제	5월 단오	작헌례·출궁·환궁	
	야백제	1월, 9월	—	
	야흑제	12월	—	
	산제	8월	—	

16 『함흥본궁의식』(K2-2497), 98a~98b.

17 『함흥본궁의식』(K2-2497), 98b~106b.

18 『함흥본궁의식』(K2-2497), 98b.

『함흥본궁의식』 향사(享祀)는 민간에서 지내는 절기별 명절에 치러졌다. 문소전 또한 진전(眞殿), 의묘(懿廟), 산릉(山陵)과 함께 절기별 명절에 제를 올렸는데, 이와 같이 민간에서 지내는 절기별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제례는 길례(吉禮) 가운데 속제(俗祭)에 속한다.

속제는 종묘와 다르게 희생(犧牲)을 제수(祭需)로 사용하지 않고 유밀과(油蜜果)와 육선(肉膳) 등 살아계실 때 평소 드시던 음식을 제상에 올린다.¹⁹ 이와 같은 상차림에 대해 기존연구는 잔치의례²⁰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속제에 진설되는 상차림은 반갱시저(飯羹匙筋)를 특징으로 하며 종묘제향과 달리 변(邊)·두(豆)와 같은 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²¹

표3- 『함흥본궁의식』 중 별대제·태백제 홀기²²

절차	『함흥본궁의식』 중 별대제·태백제 홀기
헌관취위 (獻官就位)	집사들 먼저 4배 후 국궁4배 후 몸을 일으키면 예관세위하고 손을 씻고 각자 위치로 간다.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절할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한 후, 독을 연다. 음악을 연주한다. 국궁4배 후 몸을 일으키면 음악을 멈춘다.
진반진찬 (進飯進饌)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예관세위, 관수. 음악을 연주한다.
삼상향 (三上香)	알자, 헌관을 제1실 향안 앞으로 인도한다. 헌관, 꿇고 세 번 향을 올리고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알자, 헌관을 제2실 향안 앞으로 인도한다. 헌관, 꿇고 세 번 향을 올리고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알자, 헌관을 제3실 향안 앞으로 인도한다. 헌관, 꿇고 세 번 향을 올리고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알자, 헌관을 제4실 향안 앞으로 인도한다. 헌관, 꿇고 세 번 향을 올리고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알자, 헌관을 제5실 향안 앞으로 인도한다. 헌관, 꿇고 폐백을 올리고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지.

19 강제훈, 「조선 초기 속제 제사상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2015), 220쪽.

20 위의 논문, 221쪽.

21 채수민, 「조선초기 속제의 정비 과정과 찬품 구성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4), 26~27쪽.

22 『함흥본궁의식』(K2-2497), 79a~82a.

절차	『함흥본궁의식』 중 별대제·태백제 홀기
초헌례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 헌관을 예준소하고 술을 따른다.
	알자, 헌관을 제1실 신위 앞으로 인도하면 헌관, 술잔을 집어 술잔을 드리고 (집사가)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면 부복 후 몸을 편다. (헌관이 몸을 엎드렸을 때 축문을 읽는다. 이때 헌관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음악도 잠시 멈춘다. 대축은 앞으로 나와 헌관의 왼편에서 기다린다. 축문을 읽는 동안 음악을 준비하게 하고 헌관은 부복한 후 몸을 펴게 한다. 제5실까지 같음)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면 음악이 멈춘다. 집사,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올리고 잔을 물린다.
아헌례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 헌관을 제1실 신위 앞으로 인도하면 헌관, 술잔을 집어 술잔을 드리고 (집사가)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면 부복 후 몸을 편다. (제5실까지 같음)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면 음악이 멈춘다. 잔을 물린다.
종헌례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 헌관을 제1실 신위 앞으로 인도하면 헌관, 술잔을 집어 술잔을 드리고 (집사가)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면 부복 후 몸을 편다. (제5실까지 같음)
	알자,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해오고, 헌관, 국궁4배후 몸을 펴면 음악이 멈춘다. 헌관, 합문 앞에 꿇어 앉아 부복한 후 몸을 편다.
	집사, 희흥(臙歆) 후, 뚜껑을 열고 처을 낸 후, 합둑에서 손가락을 내고 뚜껑을 닫는다. 음악을 연주한다. 헌관은 4배를 하고 국궁4배 후 몸을 펴면 음악이 멈춘다.
망료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예망료위하고 폐백을 태운다.
	알자,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사들, 각자 자리로 돌아간 후 국궁 4배 후 몸을 펴고 제장 밖으로 나간다.

『함흥본궁의식』에 기록된 별대제와 태백제 홀기는 함흥본궁 또한 속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밥과 찬을 올리고 초헌례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종헌례에 손가락을 물리는데, 이는 같은 속제로 분류된 문소전 제향의례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속제에 속한 산릉·삭망·선고사유·이환안과 대부·사·서인시향에만 등장²³할 뿐이다. 손가락과 젓가락(匙筋)이 속제 상차림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는 영조 20년으로 『국조속오례의』(1744, 영조 20)부터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문소전과 함흥본궁은 절차 마무리도

23 『국조오례의 서례』 권1 「길례」 「찬실존뢰도설」 속제: 산릉·삭망·선고사유·이환안: 대부·사·서인시향.

다르다. 문소전 제향 마무리는 축판을 땅에 묻는 망예(望瘞)지만, 함흥본궁 별대제는 축판과 폐백을 사르는 망료(望燎)로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조상례보편』(1758, 영조 34)에서 관찰된다. 1757년(영조 33) 10월 10일, 축판을 땅에 묻는 것이 불경하다고 여긴 영조가 축판과 폐백을 소각하도록 명하고 이를 『국조상례보편』에 반영²⁴했기 때문이다.

즉, 함흥본궁은 문소전과 같은 원묘로 조상을 살아계실 때처럼 모셨으므로 종묘제향과 다른 상차림을 한다. 또한 함흥본궁은 문소전과 같이 속제에 속하지만, 조선후기 제례절차와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조선전기 속제에 해당하는 문소전 제향 절차와 내용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Ⅲ.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 비교·분석

『함흥본궁의식』 향사 가운데 음악을 사용하는 향사는 정조(正朝), 4월, 10월에 거행되는 별대제와 5월 단오에 실행하는 태백제로, 악기(樂)는 향악기(鄉樂)²⁵를 사용²⁶하도록 하고 연주한 곡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²⁷

24 『영조실록』 33년 10월 10일 2번째 기사; 한형주, 「『종묘의례속록』을 통해본 정조대의 종묘제사」, 『포은학연구』 23(2019), 304쪽.

25 향악(鄉樂)을 향악기로 해석했다. 『경국대전』 취재 항목에 관한 논문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속악변증설」 그리고 이학규의 『낙하생집』 「고부고시집」의 사료를 참고했다. 이해구, 「경국대전 취재항목 중의 당악과 향악」, 『한국음악연구』 21(1993), 116~129쪽;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俗樂辨證說」; 李學達, 『洛下生集』 「觚不觚詩集」 感事三十四章.

26 정조(제),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어정」, 함흥본궁의식(한국고전번역원, 2000).

27 『홍재전서』에 행악(行樂)으로 요가(姚歌)를 연주한다는 기록이 있다. 서명웅이 편저한 『국조시악(國朝詩樂)』에 요가로 분류된 곡은 <납씨가(納氏歌)>다. <납씨가>는 독제(蠶祭)에서도 연주되었다. 정조(제),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어정」, 함흥본궁의식(한국고전번역원, 2000); 서명웅, 『보만재잉간(保晩齋剩簡)』 「국조시

정조가 함흥본궁 제향에 향악기를 사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현을 구성하는 일부 악기가 고대 중국 악기 이름으로 남아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함흥본궁 별대제와 태백제에 진설한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밝히기 위해 먼저 함흥본궁과 같은 조선전기 원묘 제향악현을 검토해 그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함흥본궁의식』과 동시대에 간행한 전례서 소재 악현을 차례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1. 조선전기 원묘 악현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 원묘 악현은 문소전 친행 악현을 축소해 사용했다. 연은전 친행 악현은 문소전 섭행 악현 그대로 진설하고 소경전 친행악현은 연은전 섭행악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림1- 『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 문소전 친행 전정악(왼쪽)·전상악(오른쪽)

악(國朝詩樂); 『악학궤범』(蓬左文庫本). 한편, 함흥본궁과 제성단을 오고 갈 때 사용되는 의장은 종묘제례악에 의거한다고 했다. 종묘대제가 친행으로 설행되면 임금이 출궁하고 환궁할 때 각각 여민락만(與民樂慢)과 여민락령(與民樂令)이 연주되나 함흥본궁 태백제는 함흥유생이 섭행했다. 그러므로 함흥본궁과 도련포를 오고가는 길에 연주된 행악(行樂)은 여민락 이외 곡이 연주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함흥본궁의식』(K2-2497) 「전교(傳教)」, 18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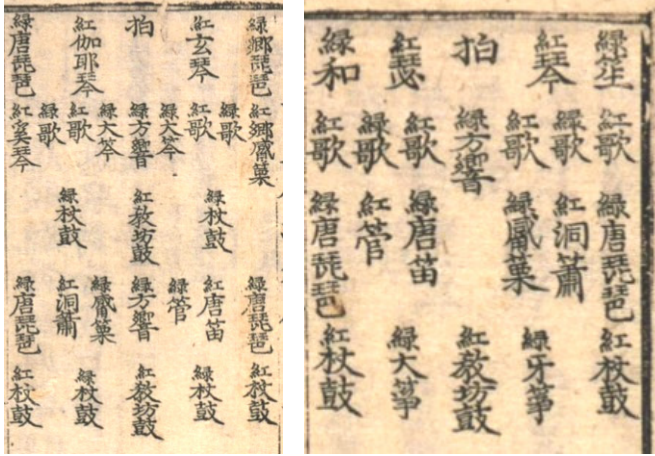


그림2-『악학궤범』 권2 「속악진설도설」,
문소전 섭행 전정악(왼쪽)·전상악(오른쪽)

표4- 조선전기 원묘 전상·계상(階上) 악현

문소전 친행 전상악	문소전 섭행 전상악 (연은전 친행 전상악)
拍 方響 和 瑟 琴 琴 瑟 笙 方響 歌 歌 歌 歌 歌 歌 歌 歌 歌 歌 唐琵琶 大箏 洞簫 唐笛 管 齊策 齊策 管 唐笛 牙箏 唐琵琶 杖鼓 杖鼓 杖鼓 教坊鼓 杖鼓 杖鼓 杖鼓	和 瑟 拍 琴 笙 歌 歌 歌 方響 歌 歌 歌 唐琵琶 管 唐笛 齊策 洞簫 唐琵琶 杖鼓 大箏 教坊鼓 牙箏 杖鼓
연은전 친행 전상악	연은전 섭행 전상악 (소경전 친행 전상악)
和 瑟 拍 琴 笙 歌 歌 歌 方響 歌 歌 歌 唐琵琶 管 唐笛 齊策 洞簫 唐琵琶 杖鼓 大箏 教坊鼓 牙箏 杖鼓	拍 唐琵琶 大箏 方響 牙箏 唐琵琶 歌 歌 齊策 歌 歌 杖鼓 唐笛 教坊鼓 洞簫 杖鼓
소경전 친행 전상악	의묘 계상악
拍 唐琵琶 大箏 方響 牙箏 唐琵琶 歌 歌 齊策 歌 歌 杖鼓 唐笛 教坊鼓 洞簫 杖鼓	唐琵琶 伽耶琴 拍 玄琴 唐琵琶 歌 歌 方響 歌 歌 奚琴 大箏 洞簫 教坊鼓 杖鼓 齊策 唐笛

표5-조선전기 원묘 전정 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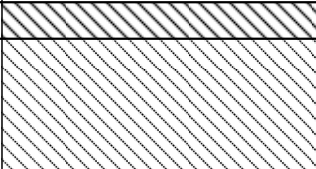
<p>문소전 친행 전정악</p> <p>奚琴 唐琵琶 伽倻琴 鄉琵琶 玄琴 拍 玄琴 鄉琵琶 伽倻琴 唐琵琶 奚琴 觱篥 歌 歌 歌 大笏 大笏 歌 歌 歌 觱篥 杖鼓 杖鼓 教坊鼓 杖鼓 杖鼓 方響 唐琵琶 洞簫 唐笛 觱篥 管 管 觱篥 唐笛 洞簫 唐琵琶 方響 方響 唐琵琶 洞簫 唐笛 觱篥 管 管 觱篥 唐笛 洞簫 唐琵琶 方響 杖鼓 杖鼓 杖鼓 教坊鼓 教坊鼓 杖鼓 杖鼓 杖鼓 杖鼓</p>	<p>문소전 섭행 전정악 (연은전 친행 전정악)</p> <p>唐琵琶 伽倻琴 拍 玄琴 鄉琵琶 奚琴 歌 歌 大笏 方響 大笏 歌 歌 鄉觱篥 杖鼓 教坊鼓 杖鼓 唐琵琶 洞簫 觱篥 方響 管 唐笛 唐琵琶 杖鼓 杖鼓 教坊鼓 杖鼓 杖鼓</p>
<p>연은전 친행 전정악</p> <p>唐琵琶 伽倻琴 拍 玄琴 鄉琵琶 奚琴 歌 歌 大笏 方響 大笏 歌 歌 鄉觱篥 杖鼓 教坊鼓 杖鼓 唐琵琶 洞簫 觱篥 方響 管 唐笛 唐琵琶 杖鼓 杖鼓 教坊鼓 杖鼓 杖鼓</p>	<p>연은전 섭행 전정악 (소경전 친행 전정악)</p> <p>拍 唐琵琶 伽倻琴 方響 玄琴 鄉琵琶 奚琴 歌 大笏 大笏 歌 鄉觱篥 觱篥 洞簫 唐笛 觱篥 杖鼓 教坊鼓 杖鼓</p>
<p>소경전 친행 전정악</p> <p>唐琵琶 伽倻琴 方響 玄琴 鄉琵琶 奚琴 歌 大笏 大笏 歌 鄉觱篥 觱篥 洞簫 唐笛 觱篥 杖鼓 教坊鼓 杖鼓</p>	

표4와 표5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 세종대에 악현이 결정된 문소전 제향이후 점차 아악기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소전 친행 전상악에 신설된 악기 중 아악기인 금(琴)과 슬(瑟), 생(笙)과 화(和)는 연은전 친행 전상악으로 활용된 문소전 섭행 전상악까지 사용되었으나 연은전 섭행 전상악부터 신설되지 않고 있다. 문소전 친행 전정악에 편성된 악기 중 아악기인 관(管, 龍管)은 연은전 친행 전정악으로 활용된 문소전 섭행 전정악까지 사용되다 연은전 섭행 전정악부터 편성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연향악현에 사용하는 교방고가 문소전부터 소경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도 확인된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문소전 친행 전정악현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위치한 악기는 앉아서 연주하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에 위치한 악기는 서서 연주²⁸한다. 즉, 악공이 교방고를 연주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앉아서 연주하는 방법과 서서 연주²⁹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원묘악현이 속악기 위주로 구성된 데에는 세종의 언급에 실마리가 있다. 세종이 원묘 제도를 의정부에서 논하게 했을 때, “원묘를 설치한 것은, 대를 이은 임금이 돌아간 이를 섬기기를 생존한 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하므로, 모든 천향(薦享)을 한결같이 생존한 때와 같게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³⁰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원묘 제향에는 평소 들으시던 음악을 연주해야한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속제에 종묘에 올리는 희생(犧牲)이 아닌 생전에 드시던 음식을 올린다고 한 서술과 일맥상 통하고 있다.³¹

문소전 제향에 사용되는 음악 역시 연향악으로 구성되어있다. 당악과 향악곡 선율을 차용해 만들었는데, 참신(參神)과 사신(辭神)에 당악(唐樂) 낙양춘(洛陽春)을 전정에서 연주한다. 작헌례에 올리는 음악은 당악(唐樂) 중강령(中腔令)과 향악(鄉樂) 풍입송(風入松), 서경별곡(西京別曲)의 곡조를 차용해 만든 환환곡(桓桓曲)과 유황곡(惟皇曲) 그리고 정동방곡(靖東方曲)을 각각 초헌, 아헌, 중헌에서 전상, 전정으로 나누어 연주한다.

28 『악학궤범』(蓬左文庫板) 권2 「시용속부제악(時用俗部祭樂)」 문소전 친행전정헌가(文昭殿 親行殿庭軒架), 8b.

29 앉아서 연주하는 교방고를 좌고(坐鼓)라고도 한다. 이에 관한 연구에서 1902년 『임인진언의궤』(奎14479-v.3)에 좌고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다고 했다. 『임인진언의궤』(奎14479 권3 (1902년 4월) 30a, 11행. “坐鼓差備 朴壽永 朴啓學” 김종수, 「교방고(敎功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음악연구』 48(2010), 102쪽.

30 『세종실록』 13년(1431) 12월 24일 4번째 기사.

31 강제훈, 앞의 논문, 220쪽.

표6-문소전 친행시 의식절차와 음악³²

절차	악현	악곡
參神	堂下樂(殿庭樂)	洛陽春
初獻	堂上樂(殿上樂)	桓桓曲
亞獻	堂下樂(殿庭樂)	惟皇曲
終獻	堂下樂(殿庭樂)	靖東方曲
飲福		
辭神	堂下樂(殿庭樂)	洛陽春

문소전 제향에서 연주한 곡들은 향악과 당악으로 모두 속악(俗樂)에 속한다. 참신과 사신에 연주한 낙양춘은 조선후기 연향에 사용되었고 중강령은 당악정재 반주곡으로 연주되었다. 고려가요 풍입송(風入松)은 고려시대 연회에서 파연곡(罷宴曲)으로 사용되었으며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올린 정동방곡은 군신동연례(君臣同宴禮)³³에 올려졌다.

조선전기 원묘에 사용된 음악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다. 원묘제향은 길례에 속한다. 그러나 원묘는 왕실 사당으로 조상을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고자³⁴ 건립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해 원묘에 올리는 음악은 돌아가신 분에게 올리는 제향악이 아닌 살아계신 분께 올리는 연향악일 수 밖에 없고 연향악을 연주하는 악현은 연향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32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2 「시용속부제악」, 문소전.

33 『태종실록』 11년(1411) 윤12월 25일 1번째 기사.

34 『세종실록』 13년(1431) 12월 24일 4번째 기사; 김종수, 앞의 책, 222쪽.

2. 정조재위연간 전례서 소재 악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묘의례는 오례 중 길례에 속하지만 조상을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기 위한 원묘의 특성상 의례에 사용하는 음악과 악기는 연향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까닭에서 정조재위연간에 간행한 전례서 소재 악현 중 연향의 성격을 가진 악현에 국한하여 검토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본고는 정조재위연간에 간행된 전례서에 기록된 제례악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유는 첫째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속악이라는 데 있고 둘째 조선초기부터 18세기까지³⁵ 오례에 사용한 악현은 고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례 악현 중 가장 부침(浮沈)이 많았던 종묘 헌가 악현(宗廟軒架樂懸)을 예로 들어보자. 『세조실록』 「악보」에 기록된 종묘 헌가 악현 하단에 연향용 악기인 교방고³⁶가 위치³⁷한다. 이는 세종대에 향악과 고취악을 바탕으로 만든 회례악(會禮樂)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을 1464년(세조 10)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1493년(성종 24)에 간행한 『악학궤범』 「시용종묘영녕전헌가(時用宗廟永寧殿軒架)」에는 교방고와 함께 진고(晉鼓)³⁸가 그려져있다. 이후 종묘헌가 악현에서 진고만 남고 교방고는 사라졌다. 1667년(현종 8)에 간행한 『종묘의궤』부터는 정대업지무 의물(儀物)³⁹로도 쓰였고 군례(軍禮)에서 형명(形名)으로 사용하는 소금(小金)과 대금(大金)이 헌가에 편성⁴⁰되었다. 이렇듯 오례

35 현재 종묘대제에 진설되는 악현으로는 『세조실록』 「악보」와 『악학궤범』에 기재된 종묘악현을 추론할 수조차 없다.

36 『세종실록』 「오례」 가례서례, 악기.

37 『세조실록』 「악보」 등가헌가지도(登歌軒架之圖).

38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2 「속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 시용종묘헌가(時用宗廟軒架).

39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2 「속악진설도설」,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40 『종묘의궤』(1667, 현종 8년, 奎14220-v.1-4), 25b~26a. 기존연구에서는 숙종대 『중

(五禮)에 사용한 악현은 전란, 경제 여건, 악공의 부족⁴¹을 이유로 18세기까지 변화되면서 속악을 사용하는 의례 악현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런 이유로 연향에 설치된 악현 외에도 속악을 사용하는 길례 악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문헌은 1777년(정조 즉위년)에 간행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와 1783년(정조7)에 작성한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그리고 1788년경 유의양(柳義養, 1718~?)이 편저한 『춘관통고』, 1795년에 거행한 화성으로의 원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와 1800년(정조 24)에 정리한 『중묘의궤』이다.

1) 제향악현

(1)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1777)·『경모궁의궤』(1783) 소재 헌가(軒架)·등가(登歌) 악현(樂懸)

경모궁은 정조의 부친 장헌세자와 모친 혜경궁 홍씨를 기리는 사당⁴²이다. 경모궁은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에 도감을 설치하고 4월에 공역을 시작해 8월에 완공⁴³했다. 같은 해 9월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 서호수(徐浩修, 1736~1799)가 요청해 경모궁 악기도감을 설치하고 김한기(金漢耆, 1728~?)와 정상순(鄭尙淳, 1723~1786)을 악기도감제조로 삼아⁴⁴ 1777년 경모궁 제향악기를 완성⁴⁵했다.

묘의궤』를 근거로 정대업지무에 의물로 사용되던 金과 大金이 헌가악현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이정희, 「조선후기 宗廟樂懸 고찰」, 『韓國音樂史學報』 29(2002), 550쪽.

41 김영주, 「조선후기 궁정음악인의 신분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21), 88~110쪽.

42 서인화 역주, 『한국음악학술총서, 제8집: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국립국악원, 2009), 12쪽.

43 『정조실록』 즉위년(1776) 9월 30일 1번째 기사.

44 『정조실록』 즉위년(1776) 8월 28일 2번째 기사.

45 『정조실록』 1년(1777) 5월 25일 5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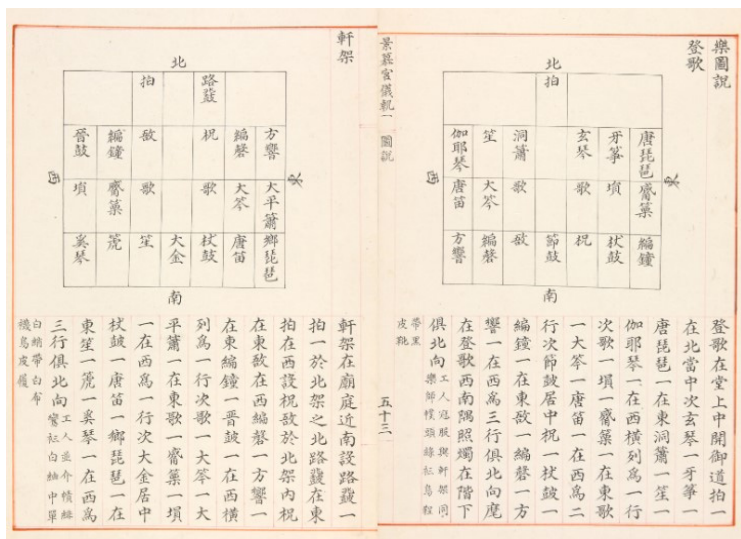


그림3-『경모궁의궤』 권1(奎13632-v.1) 「도설(圖說)」 악도설(樂圖說), 53a~b.

표7-『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의궤』 소재 악기⁴⁶

헌가	등가
拍 路鼓	拍
晉鼓 編鐘 敵 祝 編磬 方響	伽耶琴 笙 洞簫 玄琴 唐琵琶
項 鶯篋 歌 歌 大琴 太平簫	唐笛 大琴 歌 歌 項 鶯篋
奚琴 篋 笙 大金 杖鼓 唐笛 鄉琵琶	方響 編磬 敵 節鼓 祝 杖鼓 編鐘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계사질」에 기록한 새로 제작한 악기와 수량을 『경모궁의궤』 헌가와 등가 도설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악기의 종류와 수량이 일치했고 만든 악기 모두 실제로 제향에 올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모궁 의례에 사용되는 악현 역시 조선후기 중요악현에 새로 첨입한 타악기인 대금(大金)이 경모궁의례 헌가에도 등장한다. 경모궁 제향 악현에 설치한

46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奎14265) 「계사질(啓辭秩)」, 18b~26b; 『경모궁의궤』 권1(奎13632-v.1) 「도설」 악도설, 53a~b.

북은 헌가에 진고, 등가에 절고가 있다. 진고는 헌가에서 음악이 시작할 때와 음악이 끝날 때에 연주되고 절고는 등가에서 음악이 시작할 때와 음악이 끝날 때에 연주된다.⁴⁷

(2) 『춘관통고』(1788) 소재 종묘 헌가·등가 악현

『춘관통고』는 1784년(정조 8)에 정조가 예조참의 유의양(柳義養, 1718~?)에게 명하여 『오례의통편』에 기초해 만든 전례서다. 조선왕조에서 이루어진 예(禮)와 관련한 관찬문헌과 사찬문헌을 모두 수집해 하나의 문헌으로 만든 『춘관통고』는 조목의 분류와 배열을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의거했다. 정조는 『춘관통고』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로 종묘의 제사를 감독하는 관리가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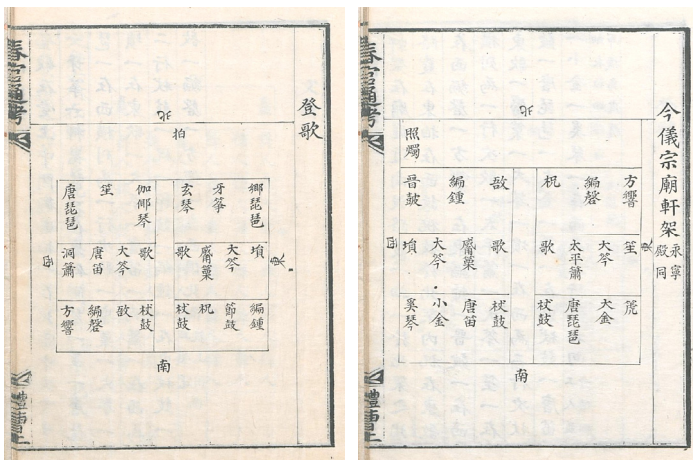


그림4-『춘관통고』(K2-4831) 9책, 86b·85b.

- 47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6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 절고(節鼓), 진고(晉鼓), 10a~10b.
 48 정조(저),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명찬(命撰)」, 춘관통고(한국고전번역원, 2000).

표9- 『종묘의궤』 종묘 등가·헌가 편성 악기

등가	헌가
敵 祝	照燭 編鐘 大琴 唐笛 拍 路鼓 祝 大琴 編磬
唐琵琶 方響 伽椰琴 拍 玄琴 牙箏 鄉琵琶	歌 <small>兼小金</small> 塤 鬲篥 鬲篥 中琴 兼太平簫 歌 <small>兼大琴</small>
唐笛 大琴 歌 歌 大琴 洞簫	篪 小琴 杖鼓 晉鼓 杖鼓 唐琵琶 方響 奚琴
編磬 鬲篥 杖鼓 節鼓 杖鼓 編鐘	

1800년(정조 24)에 간행한 『종묘의궤』 소개 「시용종묘헌가도설(時用宗廟軒架圖說)」은 1667년(현종 8) 『종묘의궤』 악현 구성과 동일하다. 같은 왕대에 편찬된 『춘관통고』 소개 「금의종묘헌가(今儀宗廟軒架)」와 다르게 노래와 소금(小金), 대금(大金)을 겸하여 쓰는 이전 『종묘의궤』를 따르고 있다. 또한 『경모궁의궤』와 『춘관통고』 「종묘악현」과 같이 1800년 『종묘의궤』 역시 등가에 절고, 헌가에 진고가 진설된 구성이 확인된다. 더불어 역대 종묘악현에서 노고(路鼓)는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다. 뇌고(雷鼓)는 천신(天神)을 위한 제사에 진설되고 영고(靈鼓)는 사직(社稷)을 위한 제사 악현에 편성되며 노고(路鼓)는 사람을 위한 제향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노고(路鼓)는 헌가(軒架)에 진설되어 진고(晉鼓)와 함께 친다.⁴⁹

정조대에 편찬된 전례서 제향악현을 검토한 결과 1667년부터 종묘헌가 악현에 추가한 소금과 대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가를 상징하는 절고와 헌가를 상징하는 진고는 『악학궤범』에 기록한 이후 조선후기 종묘악현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노고와 편중, 편경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 원묘의례에 사용한 교방고는 성종대 이후 종묘악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49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6 「아부악기도설」 노고(路鼓), 8a~8b.

2) 연향 악현

(1) 『춘관통고』(1788) 소개 전정 헌가·전정 고악·호례의식 악현

『춘관통고』에서 연향의 성격을 가진 악현으로 가례 악현(嘉禮樂懸)으로 등록된 전정헌가(殿庭軒架) 악현과 전정고악(殿庭鼓樂) 악현이 있다. 가례 악현은 아니나 임금이 군사들에게 식사를 내려주는 호례의식(餽饋儀式)에 사용한 연향의 성격을 가진 악현이 군례(軍禮)에 속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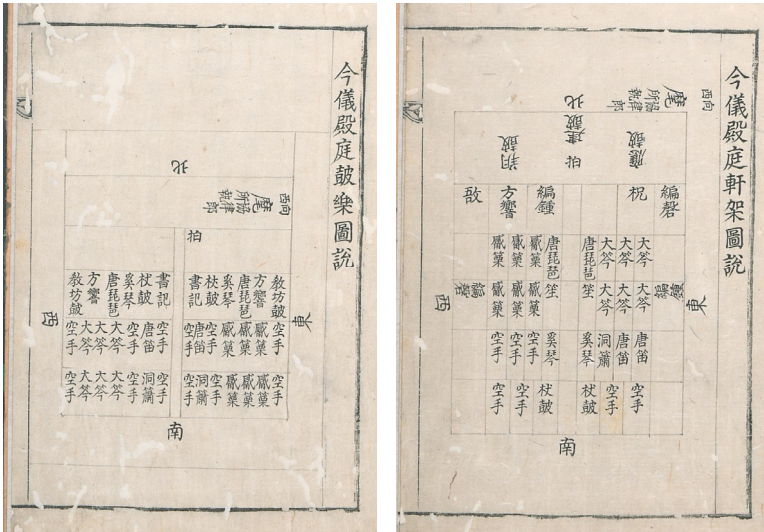


그림6-『춘관통고』 권50(K2-4831), 125b·124b

표10-『춘관통고』 금의 전정고악·전정헌가 편성 악기⁵⁰

전정헌가	
麾	
建鼓	
應鼓 拍 朔鼓	
敵 方響 編鐘 祝 編磬	

50 『춘관통고』 권50(K2-4831), 124b·125b.

전정헌가
靉栗 靉篳 靉篳 唐琵琶 唐琵琶 大琴 大琴 大琴
扁磬 靉栗 靉篳 靉篳 笙 笙 大琴 大琴 大琴 編鐘
空手 空手 空手 奚琴 奚琴 洞簫 唐笛 唐笛
空手 空手 杖鼓 杖鼓 空手 空手
전정고악(고취)
麾
拍
教坊鼓 方響 唐琵琶 奚琴 杖鼓 書記 書記 杖鼓 奚琴 唐琵琶 方響 教坊鼓
空手 大琴 大琴 大琴 空手 唐笛 空手 空手 唐笛 空手 靉篳 靉篳 靉篳 空手
空手 大琴 大琴 大琴 空手 洞簫 空手 空手 洞簫 空手 靉篳 靉篳 靉篳 空手

『춘관통고』 「가례」 금의 전정헌가는 아악기인 건고(建鼓), 응고(應鼓), 삭고(朔鼓)를 진설해 음악의 끝과 시작을 알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기연주법은 『악학궤범』 「시용전정헌가(時用殿庭軒架)」에 근거한다. 1719년(숙종 45)에 있었던 진연(進宴)과 1765년(영조 41)에 치러진 수작연(受爵宴)에 전정헌가를 설치할 때도 건고, 응고, 삭고를 진설한 바 있다.

표11-1719년 진연 전정과 1765년 수작연 헌가에 편성된 건고·응고·삭고

1719년(숙종45) 진연 ⁵¹		1765년(영조 41) 수작연 ⁵²	
殿庭	靉篳7·大琴6·唐笛2·洞簫2·杖鼓4·方響2·歌者3·編鐘2·編磬2·琵琶2·奚琴2·應鼓1·朔鼓1·建鼓1·柷1·敔1·照燭 1	軒架	篳5·簫2·簫2·簫1·埙2·缶2·建鼓1·應鼓1·朔鼓1·編鐘1·編磬1

『춘관통고』 전정헌가는 1719년(숙종 46) 진연에 설치된 전정헌가와 같은 구성으로 악기개수만 다르게 편성했다. 반면, 『춘관통고』 전정헌가는 1765년(영조 41)에 수작연에 진설된 헌가와는 다른 악기편성을 보여준다. 영조 41년에 설행된 수작연은 전반부에 아악을 연주했던 관계로 진설된 등가와

51 『진연의궤』 권1(奎14358-v.1), 19a.
52 『수작의궤』 권2(奎14361-v.2), 31a.

헌가 모두 아악기로 구성되었다. 1719년 진연과 1765년 수작연 헌가에서는 연향용 복인 교방고를 볼 수 없다. 대신 숙종 45년 진연에 설치된 전상(殿上)과 전후고취(殿後鼓吹)에는 교방고를 편성⁵³했다. 또 영조 41년 수작연에 신설된 전상고취(殿上鼓吹) 악기 구성에서 교방고를 발견⁵⁴할 수 있다.⁵⁵ 『춘관통고』 전정고악은 영조대 전상고취와 같은 편성으로 악기개수만 다르게 신설했다.

표12-1765년 수작연 전상고취⁵⁶

1765년(영조 41) 受爵宴										
殿上鼓吹	芻篥8	大笏6	唐笛2	洞簫1	琵琶2	奚琴2	杖鼓2	教坊鼓1	擔持2	方響1 擔持2

표13-『춘관통고』 금의친림호계의 악현(今儀親臨精饋儀 樂懸)⁵⁷

軍中細樂			
芻篥2	大笏1	奚琴1	杖鼓1 鼓1

『춘관통고』에는 금의 친림 호계의 악현을 구성하는 악기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군중세악은 군에 소속된 세악수 연주를 가리키며 세악수가 다루는 악기는 필률(피리) 2대, 대금 1대, 장고 1대, 북 1대⁵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성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중세악 편성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53 『진연의궤』 권1(奎14358-v.1), 19면.

54 『수작의궤』 권2(奎14361-v.2), 31면.

55 연향악대에 관해서는 김중수, 「악대 편성의 변천과 운용」,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민속원, 2022), 276~335쪽에 자세히 다.

56 『수작의궤』 권2(奎14361-v.2), 31b.

57 『춘관통고』 권76(K2-4831), 「친림호계의금의」, 110a~113b.

58 유에무라유키오, 「조선후기 세악수의 형성과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11(1993), 472쪽.

(2)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연향 악현

표14-1795년 봉수당 진찬연(정조19) 악현⁵⁹

1795년 봉수당 진찬연(정조19) 악현						
霧箏16	大箏9	唐笛2	洞簫2	奚琴8	杖鼓5	教坊鼓2

1795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있었던 진찬연(進饌宴) 악현은 조선후기 의례 악현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알려주는 사례다. 정조는 장악원에 있는 악기를 화성으로 운반하지 않고 화성에 있는 악기를 활용했다. 한성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전례가 실행될 때 그 지역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춘관통고』와 『원행을묘정리의궤』 연향악현은 조선 전기 예전(禮典)과 악전(樂典) 그리고 숙종대와 영조대 연향악현 구성과도 다른 편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파악되는 점은 특정의례에 특정악현을 진설한다고 법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악현을 운용했다는 사실이다.

IV.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 해석과 용례

1.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의 실체

조선전기 원묘 악현은 제향악현이 아닌 연향 악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론한 바 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언급한 원묘 제향 상차림이 생전에 드시던 음식으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59 『원행을묘정리의궤』 권5(奎14532-v.6), 68a, 「공령(工伶)」.

사직과 문묘제례에 연주하는 아악을 제외하고 종묘제향과 연향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속악이기 때문에 제향악현과 연향 악현은 많은 부분 악기가 중복된다. 그러나 이 두 의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악현에 포함되는 복에 있다.⁶⁰ 즉, 종묘제향악현 등가에 절고가, 헌가에는 진고⁶¹와 함께 노고가 사용되었다. 교방고는 세조대 종묘헌가에 단독으로 진설되었고 성종대에 이르러 진고와 함께 종묘헌가에 편성되었으나 이후 제향악현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향악현과 원묘악현에 설치되었다고 상술했다.

이렇듯 조선전기 원묘악현과 정조재위연간에 간행한 전례서 소재 악현에 의거해 함흥본궁 정전에서 설행한 별대제 악현에 대해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비교, 검토 대상악기는 영고(楹鼓)와 세요고(細腰鼓), 차수적(叉手笛) 그리고 횡적(橫笛)이다.

별대제부터 태백제까지 악공 6명과 악기(영고 1, 세요고 1, 차수적 2, 횡적과 해금 각각 1)를 함흥부에서 정해 보내게 하소서. 태백제 하루 전날 전내(殿內)에 있던 의장을 밖으로 꺼내 고취(대각 2, 호적 2, 북 1, 징 1와 삼현을 사용) 좌우로 크고 길게 늘어 세우도록 (하소서).⁶²

60 물론, 1765년(영조 41)에 있었던 수작의(受爵儀)의 경우, 아악을 연주한 등가에 절고(節鼓)가 편성되었다. 헌가에 위치한 응고(應鼓), 건고(建鼓), 삭고(朔鼓)는 아악을 연주하는 가례에서 사용하는 북이다. 『수작의궤』, 『국조오례의서례』 권2 「가례」, 「악기도설」.

61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 「아부악기도설」. 「節鼓: 『文獻通考』云, “江左清樂, 有節鼓. 狀如奕局, 朱髹畫其上. 中開圓竅適容鼓焉, 擊之以節樂也. 自唐以來, 雅樂聲歌用之, 所以興止登歌之樂.”; 『晉鼓: 『文獻通考』云, “晉鼓, 其制大以短, 蓋所以鼓金奏也. 鐘師, 以鐘鼓奏九夏, 鑄師, 掌金奏之鼓, 豈晉鼓歟. 注云, 以木柱貫鼓, 下爲趺, 上爲橫筩.”

62 『함흥본궁의식』(K2-2497), 99b. “別大祭及太白祭, 用樂工[六名]樂器[楹鼓一細腰鼓一叉手笛二橫笛奚琴一]自咸興府定送爲白齊. 太白祭前一日奉出殿內所備儀仗陳於左右大張鼓吹[大角二, 胡笛二, 鼓一, 鉦一. 兼用三絃.]” 태백제 행악에 사용된 고취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

『함흥본궁의식』에 기록되어있는 악기는 『국조오례의 서례』와 『악학궤범』 그리고 1785년(정조 9)⁶³에 간행한 『종묘의례속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고(楹鼓)는 건고(建鼓)라고도 불리는 은영고(殷楹鼓)⁶⁴를 뜻한다. 세요고(細腰鼓)는 중국 송대(宋代) 소사(簫思)가 칭한 명칭으로 장고(杖鼓)⁶⁵를 가리키며, 차수적(叉手笛)은 율관제도(律管制度)를 확립한 중국 송대(宋代) 화현(和峴)⁶⁶이 이름한 악기로 조선에서는 필률(髣篥) 즉 피리⁶⁷를 뜻한다.

표15- 『함흥본궁의식』 소재 별대제·태백제 악기편성

악현명칭	악기편성	제례
三絃	樂工 6名, 楹鼓 1, 細腰鼓 1, 叉手笛 2, 橫笛 1, 奚琴 1	別大祭·太白祭
鼓吹	大角 2, 胡笛 2, 鼓 1, 鉦 1, 三絃	太白祭

문제는 영고와 횡적이 어떤 악기냐는 점이다. 영고는 건고로 연향 악현에 설치되는 것은 맞다. 대부분 궁중연향에 건고가 편성⁶⁸되었으나 본고에서는 1719년(숙종 45)에 실행한 진연과 1765년(영조 41)에 치러진 수작연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63 1784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이듬해 1785년에 간행되었다.

64 『국조오례의서례』 권2 「가례」 「악기도설」, 건고. “『樂書』云, “明堂位」曰 ‘殷楹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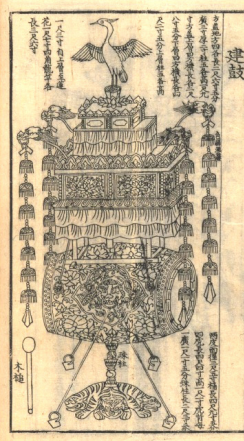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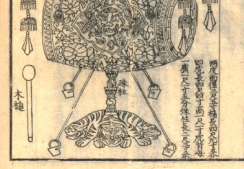
65 『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 「속부악기도설」, 장고. “『文獻通考』云, “翔鼓·杖鼓·腰鼓, 漢魏用之. 大者以瓦, 小者以木類, 皆廣首纖腹. 宋蕭史所謂細腰鼓, 是也. 右擊以杖, 左拍以手, 後世謂之杖鼓. 其聲和壯而有節也.”; 『종묘의례속록(宗廟儀軌續錄)』(K2-2202) 「악장수의(樂章收議)」.

66 『주자어류(朱子語類)』 「악고금(樂古今)」.

67 『종묘의례속록』(K2-2202) 「악장수의」. “篥即 宋和峴 所謂叉手笛而非胡笛也.”

68 김중수, 『의례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민속원, 2022), 278~298쪽.

표16- 건고(建鼓)를 진설한 1719년 진연과 1765년 수작연

		1719년(숙종45) 진연 ⁶⁹	
		殿庭	鶯築7·大琴6·唐笛2·洞簫2·杖鼓4·方響2·歌者3· 編鐘2·編磬2·琵琶2·奚琴2·應鼓1·朔鼓1· 建鼓 1· 祝1·敵1·照燭1
		1765년(영조 41) 수작연 ⁷⁰	
		軒架	箎5·遂2·簫2·簫1·埙2·缶2· 建鼓 1·應鼓1·朔鼓1· 編鐘1·編磬1

『악학궤범』 권6 「아부악기도설」, 건고.

1719년 진연과 1765년 수작연에 설치된 전정헌가 모두 연향에 사용되는 건고가 응고, 삭고와 함께 편성되어있다. 두 연향은 한성에서 설행되었지만 함흥본궁은 한성이 아닌 함경남도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화를 검토해보았지만 지방에서 열린 연회에 2미터가 넘는⁷¹ 건고가 등장한 사례는 없었다. 건고가 지방관청마다 있었다면 지방에서 열린 연회를 기록한 그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건고를 그린 지방 연회도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원묘제향악현 또한 연례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건고를 설치한 예는 없었다.

영고와 횡적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정조의 언급에 있다. 정조는 “樂(악기)은 鄉樂(향악기)⁷²를 사용”⁷³하도록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함흥본궁의식』

69 『진연의궤』 권1(奎14358-v.1), 19a.

70 『수작의궤』 권2(奎14361-v.2), 31a.

71 『악학궤범』(蓬左文庫本) 권6 「아부악기도설」, 건고(建鼓), 6a.

에 기록한 영고는 아악기로 분류한 건고를 지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로로 부는 관악기인 횡적 역시 향악기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 해석을 하는 데 전제조건은

- ① 향악기이어야 할 것.
- ② 제례악현이라도 연향의 성격을 띄고 있어야할 것.

①과 ②를 충족하는 북과 횡적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17-조선전기 원묘제향악현 편성악기와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

함흥본궁 별대제	문소전 친행	연은전 친행	의묘	소경전 친행
차수적=필률	필률·통소	필률·통소	필률·통소	필률·통소
횡적	당적·대금	당적·대금	당적·대금	당적·대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세요고=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영고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교방고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와 조선전기 원묘에 사용한 악기를 비교했다.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 중 차수적은 필률(箏箏, 피리)이고 세요고는 장고(杖鼓)로 조선전기 원묘악현에도 모두 포함되어있는 악기다. 횡적(橫笛)에 해당하는 원묘악현 편성악기는 당적(唐笛)과 대금(大笳)이 있다. 이 가운데 향악

72 향악(鄉樂)을 향악기로 해석했다. 『경국대전』 취재 항목에 관한 논문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속악변증설」 그리고 이학규의 『낙하생집』 「고부고시집」의 사료를 참고했다. 李惠求, 「經國大典 取才項目 中の 唐樂과 鄉樂」, 『한국음악연구』 21(1993), 116~129쪽;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俗樂辨證說」: 李學達, 『洛下生集』 「觚不觚詩集」 感事三十四章.

73 정조(저), 신승운(역), 『홍재전서』 「군서표기」 「어정」, 함흥본궁의식(한국고전번역원, 2000).

기에 해당하는 악기는 대금이므로 함흥본궁 별대제 악기편성 중 횡적은 대금으로 특정할 수 있다. 또, 조선전기 원묘악현에 사용한 북은 교방고로 함흥본궁 별대제에 설치했다고 적힌 영고는 교방고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와 정조대에 간행한 전례서에 기입된 악기들과 비교했다.

표18- 함흥본궁 별대제 편성악기와 정조대 간행 전례서 소재 악현 편성악기 비교

함흥본궁 별대제	경모궁 제향	춘관통고 종묘제향	춘관통고 전정헌가	춘관통고 전정고취	춘관통고 군중세악	봉수당 진찬
차수적=필률	필률·통소	필률·통소	필률·통소	필률·통소	필률	필률·통소
횡적	당적·대금	당적·대금	당적·대금	당적·대금	대금	당적·대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세요고=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장고
영고	진고·절고	진고·절고	건고·응고·삭고	교방고	고(鼓)	교방고

정조대에 간행한 전례서 악현에서도 횡적의 비교대상은 당적과 대금으로 나타났다. 즉, 횡적은 향악기인 대금으로 확인된다. 정조대 전례서에서 영고의 비교대상은 조선전기 원묘악현에서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모궁의궤』에서는 진고, 절고, 노고, 『춘관통고』 종묘악현에서 역시 진고와 절고 그리고 노고로 드러난다. 그러나 해석의 전제조건 중 두 번째 제례악현이라도 연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점에 부합되지 않는다.

『춘관통고』 전정헌가에 설치한 북은 건고, 응고, 삭고다. 건고와 응고 그리고 삭고는 연향악현에 편성되는 북은 맞다. 그러나, 이들 북은 아악기에 속하므로 해석의 조건 첫 번째 향악기(鄕樂器)이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하지 않는다. 『춘관통고』 「전정고악」과 『원행을묘정리의궤』 「봉수당 진찬」 악현에 진설한 북은 교방고로 두 가지 해석의 조건에 맞는다. 『춘관통고』 「친림호궤의식」에 사용한 군중세악에 사용한 북은 “鼓”라고 되어있어 북 중에 어떤 북인지 지정하기 어렵다. 군중세악편성을 사례로 검토했을 때

교방고, 좌고(坐鼓)⁷⁴, 용고(龍鼓) 중 하나로 짐작된다. 그런데, 『교방가요』에서는 좌고 역시 교방고로 표기하고 있고, 용고는 교방고를 소형으로 제작해 끈을 달아 행악(行樂)에 사용한 악기를 가리키므로 세 가지 형태 북 모두 교방고로 통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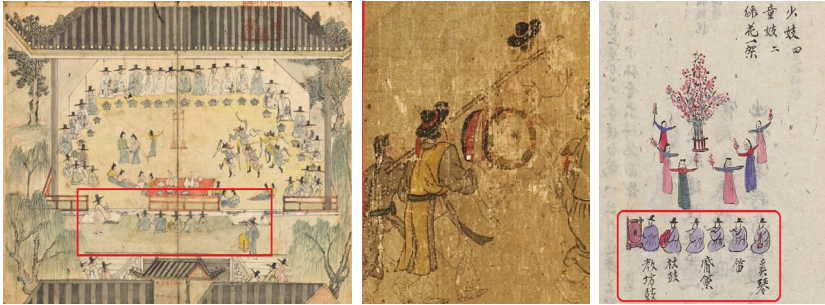


그림7- 교방고의 다양한 형태

문소전 친행 전정악현 교방고 연주법⁷⁵이 조선후기 연희로 이어져왔다는 사실을 그림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왼쪽 연희도는 영조 30년에 있었던 장악원 전·현직 관리들이 모여 잔치를 벌인 『이원기로계회도(梨園耆老契會圖)』⁷⁶이다. 붉은 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 뒤쪽에 큰 북을 앞에 둔 한 사람이 서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림7 가운데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모당 홍이상 평생도』⁷⁷ 중 「삼일유가」 행렬에서 교방고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7 오른쪽 연희도는 『교방가요』에 기록된 <육화대(六花隊)>⁷⁸

74 현재는 座鼓로 쓰이나 좌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보이는 1902년 4월 『(임인)진연의 궤』에서는 坐鼓로 기록되어있다. 본고는 『진연의궤』에 따라 坐鼓로 표기했다.

75 제2장 조선전기 원묘악현과 비교 참조.

76 『이원기로계회첩좌목(梨園耆老會契帖座目)』(가람古361.4-1w9), 2a.

77 『모당 홍이상 평생도』(덕수 5768).

78 『교방가요』(D6B-29), 29a.

연행 장면이다. <육화대>를 반주하는 음악인들을 담당 악기로 표시했다. 오른쪽 그림 아래에 붉은 색 상자 속 가장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교방고 연주자로 그림7 오른쪽과 가운데 그림 속 교방고 연주자와 다른 연주방식을 보여준다.

『춘관통고』와 『원행을묘정리의궤』 연향악현 혹은 연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악현에서 공통적으로 검토된 붉은 교방고로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에 기록된 영고는 교방고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은 필률 2, 장고 1, 대금 1, 교방고 1로 편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성을 가리켜 『함흥본궁의식』에서는 “삼현(三絃)”⁷⁹으로 이름하고 있다.

2.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 “삼현”의 용례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은 “삼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삼현⁸⁰은 세악(細樂)⁸¹이라고도 한다. 영조는 용호영 삼현(龍虎營三絃)⁸²을 용호영 세악(龍虎營細樂)⁸³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세악은 삼현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현은 궁정과 민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삼현이 진설된 행사는 군왕이 내려주는 양로연과 삼일유가(三日遊街)가 대표적이다. 또 향사(享祀)와 개인연회, 협사(狹斜)에서도 사용되었다. 삼현이 사용된 몇 가지 예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79 『함흥본궁의식』(K2-2497), 99b.

80 『전객사일기』 영조 51년 을미(1775) 8월 18일.

81 『춘관통고』 권76(K2-4831) 「친림호궤의금의」, 110a~113b.

82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8월 28일 25/27 기사.

83 『영조실록』 45년(1769) 2월 27일 2번째 기사.

1) 궁정과 지방관청의 삼현: 양로연(養老宴)·삼일유가(三日遊街)

영조는 말년에 이르러 한성과 각 지방에 양로연을 자주 내렸다. 그때 사용한 악기들을 가리켜 ‘삼현(三絃)⁸⁴’ 혹은 ‘군문삼현(軍門三絃)⁸⁵’이라고 했다. 정조 역시 1795년 6월 혜경궁 홍씨에게 진표리(進表裏)와 진찬연(進饌宴)을 행할 때 장용영(壯勇營) 세악수(細樂手)를 동원해 향당교주(鄉唐交奏)⁸⁶를 연주하게 했다.⁸⁷ 이는 『춘관통고』에도 기록되었는데 ‘군중세악(軍中細樂)’이라고 칭하고 있다. 특히, 문·무과 과거 급제자들에게는 특정 군영에 속한 삼현을 내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해당 군영 이름을 붙여 ‘용호영삼현(龍虎營三絃)⁸⁸’, ‘훈련)도감삼현((訓練)都監三絃)⁸⁹’이라고 했다.

84 『전객사일기』 영조 49년 계사 (1773) 윤3월 19일. “一, 黃海監司李宅鎮, 本月十六日成貼狀啓內, 臣於本月十三日到營後, 十六日依聖教, 會集海州境內土庶年八十以上人, 行養老宴, 饌則餅糲紅白散子魚肉實果各十一器, 樂則三絃, 會者凡七十六人, 而其中九十歲人五人, 九十一歲人四人, 九十二歲人二人, 爲最高年是白如乎. 臣擎示有旨, 逐字曉諭, 則舉皆感泣, 攢手祝聖, 扶杖起立, 蹲蹲對舞是白遣, 其外以病未赴宴者, 則各送饌于其家, 使其子孫, 以爲宴樂之地是白乎旃. 各邑養老宴段置, 斯速舉行之意, 發關更飭爲白乎旃, 緣由馳啓事.”

85 『전객사일기』 영조 51년 을미(1775) 8월 18일. “[庶民年八十以上, 設饌舉行] 一. 藥房入診時, 八十以上設饌, 京兆一體舉行事下教. [設饌二十日定行, 令軍門持給三絃以助] 一. 曹啓曰, 八十以上設饌, 京兆一體舉行事命下矣. 設饌日子, 今八月二十日定行, 而依己丑年例, 酒饌及床排風物等事, 令各該司, 依前例舉行事分付何如. 傳日知道, 其日令軍門, 特給三絃以助焉.”

86 조선전기 향당교주는 향악기와 당악기의 합주를 의미한다. 반면 조선후기 향당교주는 영산회상을 가리킨다. 이혜구, 「경국대전 취재항목 중의 당악과 향악」, 『한국음악연구』 21(1993), 118쪽;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8월 18일 13/14 기사.

87 『승정원일기』 정조 19년(1795) 6월 18일 21/24 기사. “午後進饌堂郎整備畫茶啖, 饌品以進, 命內外賓中近戚諸人入參. 上曰, 進饌既異於進宴, 盡饌又異於進饌, 而在今日飭喜之道, 不可無管籥之助歡, 依今春華城進饌時例, 以本營細樂, 入奏於進饌時, 可也.”

88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8월 28일 25/27 기사. “上下教曰, 今科八十一慶科, 故昨臨月臺放榜, 今又召見矣. 命文科壯元金魯永進前. 上曰, 汝是具慶下而不張樂云, 似是汝父之意也. 汝之所居洞, 卽予舊邸也, 龍虎營三絃特給, 汝今日遊焉. 命書傳教曰, 昨聞寥寥云, 噫, 此第何第, 壯元誰孫? 今猶三日內, 故特給龍虎營三絃, 令該曹, 米綿題給, 以示予意.”

89 『승정원일기』 영조 51년(1775) 11월 17일 경인 36/40 기사.

2) 민간의 삼현활용: 개인연회·유흥·향사

전라도 장흥에서 살던 위백규(魏伯珪, 1727~1798)가 1765년 동생에게 쓴 편지에도 삼현이 등장한다. 잔칫날에 관아에 소속되어있는 “삼현수(三絃手)”를 부르자는 내용⁹⁰이 있다. 또, 경상도 안동에 사는 유장원(柳長源, ?~?)은 과거에 낙방한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기도⁹¹ 했다.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은 정월 대보름날 밤 광통교 유흥가에서 가곡을 합창하던 풍경을 글로 남겼다. 가곡을 반주하는 악기편성을 가리켜 “세세삼현(細細三絃)”이라고 표현하면서 “삼현은 세악(細樂)”⁹²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삼현의 악기편성이 5군영 소속 세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조선후기 무반(武班)인 노상추는 그가 17세 되던 1763년부터 84세로 사망한 1829년까지 67년간 일기를 썼다. 18세기 조선 사회를 반영한 『노상추 일기』에는 개인 향사(享祀)에 삼현을 활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노상추 집안 가묘(家廟)에 신주를 봉안하는 봉안고유제를 지낼 때 삼현을 사용⁹³했다. 봉안고유제는 제사에 속하나 그 성격이 경사(慶事)에 해당하므로 삼현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제례에 삼현이 사용된 사례는 『교방가요』⁹⁴에서도 확인된다. 논개의 의절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의암별제에 삼현 2패가 사용된 바 있다.

90 1765년 위백규(魏伯珪) 서간(書簡), 출처: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index.do>, 2022.12.19.)

91 유장원(柳長源), 『동암집(東巖集)』 권8 「서(書)」, 기천휴(寄川休).

92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요」, 『조선대세시기 II』, 국립민속박물관(2005), 69쪽.

93 『국역 노상추일기』 1825년(순종 25) 5월 23일.

94 『교방가요』(D6B-29), 40b.



신윤복, <쌍검대무>, 간송미술관



김홍도, <무동> 국립중앙박물관
(본관6504-24)



『원행음요정리의궤』관수
(奎14518-v.1), 62a.

鼓
杖鼓
管
管
笛
稽琴



『교방가요』(D6B-29),
40b.

그림8- 18~19세기 풍속화와 기록화 속 “삼현(三絃)”

V. 맺음말

본고는 『함흥본궁의식(咸興本宮儀式)』(1795, 정조 19)에 수록한 별대제(別大祭) 악현(樂懸)과 악기구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본고가 제기한 문제는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을 구성하는 몇몇 악기가 중국 고대 아악기명으로 기록되어있고 연주법으로 악기이름이 적혀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현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전기 원묘 제향악현과 정조제위연간에 간행한 전례서에 포함된 제향과 연향악현을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과 비교, 검토했다. 해석을 하는 데 전제조건은 함흥본궁의 묘제와 정조의 언급에 있다. 즉, 정조가 『홍재전서』에 적은 바와 같이 사용된 악기는 향악기이어야하고 함흥본궁은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고자 건립한 원묘(原廟)이기 때문에 사용된 악현은 제례악현이더라도 연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그러므로 가례용 북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영고(楹鼓)는 조선전기 원묘악현과 정조대 전례서에 기재된 연향악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교방고(敎坊鼓)로 판단했다. 횡적(橫笛) 또한 마찬가지로 조선전기 원묘악현과 정조대 전례서 연향악현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당적(唐笛)과 대금(大笏) 가운데 향악기인 대금으로 파악되었다. 즉,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은 세요고(細腰鼓)로 기록된 장고(杖鼓) 1, 차수적(叉手笛)으로 쓰여진 필률(鬚篳; 피리) 2, 해금(奚琴) 1, 영고(楹鼓)로 기재된 교방고(敎坊鼓) 1, 횡적(橫笛)으로 적힌 대금(大笏) 1로 구성되었고 『함흥본궁의식』에서는 이와 같은 악기편성을 “삼현(三絃)”으로 이름했다.

삼현은 18세기 조선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악기편성이었다. 5군영과 각 지방 관청이 보유하고 있던 악기들이었기 때문에 군왕이 각 지방에 내려주는 양로연이나 과거급제자들에게 내리는 삼일유가에 삼현이 동원되었다. 함흥본궁 별대제에 보내는 악기들을 함흥부에서 정하게 한 사례와 노상추 가문에서 치러지는 봉안고유제(奉安告由祭)에 고을관청 부사가 보낸 삼현이 사용되었다는 일기로 미루어볼 때 각 지방관청이 보유하고 있던 삼현은 관청내외 행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라도 장흥에 사는 위백규 집안 잔치에 해당관청 삼현을 부르고 과거에 떨어진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 삼현을 부르자는 경상도 안동에 살던 유장원이 쓴 편지를

보아도 18세기 조선에서 삼현은 보편성을 지닌 악기구성이었다는 실상(實狀)이 확인된다.

『함흥본궁의식』 소재 별대제에 사용된 삼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조선후기 전례 악현이 융통성있게 편성되었다는 바이다. 특정의례에 특정악현을 진설하도록 『법전』과 『예전』에 규정해놓았더라도 실제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악현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삼현이 여러 의식에 사용된 배경으로 조선후기 국가재정 악화로 인해 악공을 고용하기 힘들어졌고 그런 이유로 다양한 전례에 군영 소속 세악수를 활용⁹⁵한 사례가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95 김영주, 앞의 논문, 100~106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國朝五禮儀序例』.

『國朝續五禮儀』.

『악학궤범』(蓬左文庫本).

『朱子語類』(欽定四庫全書本).

『典客司日記』.

『春官通考』(K2-2143).

『教坊歌謠』(D6B-29).

『咸興本宮儀式』(K2-2497, 奎2286, 奎14267).

『受爵儀軌』(奎14361-v.1-2).

『進宴儀軌』(奎14357).

『宗廟儀軌續錄』(K2-2202).

徐命膺, 『保晚齋剩簡』(古0270-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學遠, 『洛下生集』.

柳長源, 『東巖集』.

『梨園耆老會稷帖座目』(가람古361.4-1w9).

『모당 홍이상 평생도』(덕수 5768).

2.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I』.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5.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노상추일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21.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문화사적 고찰』. 서울: 민속원, 2018.

_____, 『의례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 서울: 민속원, 2022.

서인화 역주, 『한국음악학술총서, 제8집: 역주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서울: 국립국악원, 2009.

정조(저), 신승운(역), 『홍재전서』.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00.

3. 논문

- 강석화,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強化」. 『규장각』 18, 1995, 27~67쪽.
- 강제훈, 「조선 초기 속제 제사상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2015, 209~241쪽.
- 김영주,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의 신분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 _____, 「『시용향악보』 소재 무가류 악곡 수록배경 연구」. 『한국예술연구』 35, 2022, 289~309쪽.
- 김종수, 「교방고(敎功鼓)와 좌고(座鼓)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음악연구』 48, 2010, 77~107쪽.
- 이정희, 「조선후기 宗廟樂懸 고찰」. 『韓國音樂史學報』 29, 2002, 535~570쪽.
- 이혜구, 「경국대전 취재항목 중의 당악과 향악」. 『한국음악연구』 21, 1993, 116~129쪽.
- 유에무라유키오, 「조선후기 세악수의 형성과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11, 1993, 471~495쪽.
- 윤정, 「정조의 本宮 祭儀 정비와 ‘中興主’ 의식의 강화」. 『한국사연구』 136, 2007, 179~216쪽.
- _____, 「숙종대 神德王后 本宮 追祀 논의와 本宮 인식의 변화」. 『한국사학보』 37, 2009, 171~202쪽.
- 채수민, 「조선초기 속제의 정비 과정과 찬품 구성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한형주, 「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24, 2007, 69~102쪽.
- _____, 「『종묘의례속록』을 통해본 정조대의 종묘제사」. 『포은학연구』 23, 2019, 275~308쪽.
- Lee, Wook, “The Confucian Systematization of the Royal Ancestral Cult: On Chosŏn’s Hamhŭng Pon’gung,” *Th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5, 2014, pp. 89~118.

4. 인터넷자료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index.do>, 2022.12.19.)

국문초록

본고는 1795년(정조 19)에 간행된 『함흥본궁의식』에 기록된 별대제(別大祭) 악현에 관한 글이다.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은 영고(楛鼓) 1대, 세요고(細腰鼓) 1대, 차수적(叉手笛) 2대, 횡적(橫笛) 1대, 해금(奚琴) 1대로 이루어져있다. 이 가운데 해금을 제외한 악기들이 중국 고대 아악기 이름으로 남아있거나 연주 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있어 악기 실체는 물론 악현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악기는 향악기(鄕樂器)를 사용한다는 정조의 언급과 원묘(原廟)로 규정된 함흥본궁 묘제(廟制)를 전제로 함흥본궁 별대제에 진설된 악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함흥본궁 묘제와 동일한 조선전기 원묘 제향악현과 『함흥본궁의식』과 동시대에 편찬된 전례서 소재 악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영고는 교방고(敎坊鼓)로, 세요고는 장고(杖鼓)로, 차수적은 필률(箏策: 피리), 횡적은 대금(大琴)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악기편성을 가리켜 『함흥본궁의식』에서는 “삼현(三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함흥본궁 별대제 악현은 조선후기 5군영에 소속된 세악수가 연주하던 악기편성과 같다. 이는 조선후기 전례 악현이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러한 악현 운용은 조선후기 재정이 악화되면서 악공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생겼고, 이를 대체할 인력으로 군영에 소속한 세악수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투고일 2022. 12. 2.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함흥본궁(Hamheung Founder Palace), 원묘(Royal Family Shrine), 연향(Banquet), 교방고(Gyobanggo), 삼현(the orchestration of 6 musical instruments)

Abstract

Operation of Orchestration in Special Memorial Rites from *Hamheung Bon-gung Ceremony*

Kim, Young-ju

This paper researches the orchestration of *Byeoldaeje* (別大祭; special memorial rites) recorded in *Hamheung Bon-gung Ceremony* (咸興本宮儀式; The Royal Protocol of Hamheung Founder Palace Ceremony) published in 1795 (King Jeongjo 19). Hamheung Bon-gung Byeoldaeje used the *Akhyun* (樂懸; orchestra) which consists of 1 Yeonggo (桴鼓), 1 Seyogo (細腰鼓), 2 Chasujeok (叉手笛), 1 horizontal flute (橫笛), and 1 Haegeum (奚琴).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khyun because the names of five musical instruments, except for Haegeum, are written in the names of ancient Chinese instruments or with their playing methods.

Premising King Jeongjo's mention that musical instruments were used as Hyangakgi (鄉樂器) at Byeoldaeje and the rites system of Hamheung Bon-gung were defined as Wonmyo (原廟; royal family shrin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band of Byeoldaeje and the orchestra of Wonmyo in early Joseon also Akhyuns in *Uigwes* (儀軌; The Royal Protocols)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Hamheung Bon-gung Ceremony*. Consequently, Yeonggo is *Gyobanggo* (教坊鼓) and Seyogo is *Janggo* (杖鼓), Chasujeok is *Pilyu I* (箏篥; Piri), and the horizontal flute is *Daeggeum* (大琴). This kind of musical instrumental arrangement is recorded as “Samhyun (三絃 means three strings literally but the band consisted of 6 musical instruments during late Joseon)” in Hamheung Bon-gung Ceremony.

As a result, the orchestration of Hamheung Bon-gung Byeoldaeje is the same as the musical instruments played by Seaksu (細樂手) who were musical soldiers belonging to the 5 military camps in late Joseon. This is the counter-evidence that the orchestration of ceremonies in late Joseon was used flexib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addition, it is presumed that the fiscal deficits forced Joseon to use Seaksu instead of hiring musicians.